

성서40주간(성서38주간: 야고보 서간)

1. 책의 이름 : 야고보 서간

2. 저자

누가 이 서간의 저자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. 야고보라는 이름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모르니까 야고1,1에서 필자는 “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”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. 이들 중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과 동기간인 야고보로 본다. 그는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.

3. 수신인

야고보서는 1,1에서 ‘사방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’라고 했다. 따라서 이 편지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일종의 회람문서라 할 수 있다. 본래 12지파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, 흩어져 산다는 말은 팔레스티나 본토 밖에서 사는 해외동포를 뜻한다.

4. 집필 동기

이 서간은 당시 교회에 있었던 다음 문제점들에 관해 훈계하기 위해 씌어진 것으로 본다.

- 빈부의 격차
- 실천을 강조
- 상호간의 화목

5. 야고보서의 구조

- 일상생활을 위한 훈계
 - ✓ 시련과 유혹과 하느님의 선물 (1, 2-18)
 - ✓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 (1,19-27)
 - ✓ 차별의 문제 (2,1-13)
 - ✓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(2,14-26)
- 두 번째 큰 단락으로 사도의 훈계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, 사회생활을 위한 훈계
 - ✓ 혀를 지키는 복음의 실천 (3,1-12)
 - ✓ 진정한 지혜 (3, 13-18)
 - ✓ 불목과 화목에 관한 교훈 (4,1-12)
 - ✓ 부자에 대한 경고 (4, 13-5,6)
- 여러 가지 훈계 (5, 7-20)
 - ✓ 5,12-20에는 공동체 안에서 상부상조하는 생활규율이 다루어 지고, 5,16-19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훈계이다. 믿음의 기도는 병자에게 영육으로 필요한 구원의 은사를 받기에 특별한 효력을 지닌 기도임을 강조한다고 본다.